

연구소 소식

2016년 시무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4일(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소장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2016년도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한층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핀란드의 ECEC 정책 및 아동의 웰빙(Well-being)」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25일 (월) 대회의실에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Nina Sajaniemi 교수를 초청하여 '핀란드의 ECEC 정책 및 아동의 웰빙(Well-being)'이라는 주제로 원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ina Sajaniemi 교수는 헬싱키 대학교의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소속으로 유치원 교원 및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본 간담회는 최윤경 전략기획센터장 및 원내 연구원, 장혜진 대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Nina Sajaniemi 교수의 발표에 이어 핀란드의 ECEC 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제1차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28일(목) 대회의실에서 '자신만만, 행복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된 본 협의회에는 우남희 소장



과 이미화 기획경영실장, 이정원 연구기획팀장, 권미경 육아지원 연구팀장 등 원내 직원을 비롯하여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다. 2016년 연구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2016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육아콘서트(가칭)'의 개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행복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9일(수)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신규 연구직원이 자신의 주요 연구를 발표하고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훈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을,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